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27면	"도내 4만 사회복지사 목소리 대변 유연한 협회 만들 것"	1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강원도사회복지사업협회장 이.취임식[1/2]	2
강원도민일보	02면	도의회 상임위, 이달 줄줄이 해외연수	4
강원도민일보	12면	옥계항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 도약 '청신호'	4
江原日報	01면	"오색케이블카 · 산악관광 연계 미래산업 육성"	5
江原日報	02면	“ 환경친화적 명품 케이블카 만들자 ” 결의	5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1/2]	6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신준현 화천군산림조합장 취임식	8
강원도민일보	20면	[의정칼럼]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교육특례 적극 발굴해야	9
강원리뷰	온라인	[동정] 3월 넷째주	10
江原日報	07면	도내 유망 중기 수출기회 부여 UN · 해외 조달 진출 컨퍼런...	11
강원도민일보	26면	강원 역사문화권 정비 계획 올해 수립 착수	11
江原日報	01면	"의사 없다며 심장진료 퇴짜" 道 필수의료TF 만든다	12
江原日報	04면	'인력 · 시설' 또 빠진 응급의료 대책에 한숨	12
강원도민일보	04면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개명 작업 본격화	13
강원도민일보	04면	평창군 · 도교육청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협의	14
江原日報	12면	동해북부선 양양역세권 개발 본격화	14
강원도민일보	04면	평창 습격한 날파리떼... "수천마리 무리 일상 방해"	15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원주 아카데미극장 갈등 비화 안돼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강원도 바이오헬스 산업 전략, 반드시 성공해야	17
강원도민일보	21면	[사설] 전통시장 특화된 매력 상설이어야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도 수출 8개월째 감소, 활력 불어넣을 대책 마련을	19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2일 (수)
인물 27면

“도내 4만 사회복지사 목소리 대변 유연한 협회 만들 것”

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취임식
20대 신임 회장에 진영호 취임
김진태 도지사 등 100여명 참석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는 21일 춘천 ORA호텔베어스소양홀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 변영혜 제18·19대 회장이이임하고 진영호원주아동센터장이 2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권혁열 도의회 의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신정찬 한국아동복지협회장, 홍기종 강원도사회복지협회장, 김종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도내 직능



21일 춘천 오라호텔 베어스에서 열린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변영혜(사진 왼쪽)전임회장이 진영호 신임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김정호

단체 및 시·군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진영호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도내 4만여명의 사회복지사를 대변하고 그

들의 목소리를 내는 유연한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복지 증진과 화합을 위해 회원들이 활발히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정책포럼과 사회복지연대, 전문

성 향상 교육 등으로 사회복지사 위상 강화에 힘써 온 변 전 회장과 임원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김진태 지사는 “장기근속휴가제 도입과 함께 도의 재정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급여인상을 고려하는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권혁열 의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나은 여건에서 일하도록 정책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종석 회장은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는 사회복지사의 직업적 숭고성은 매우 높다”며 “가슴아픈 사연이 언론에 실리지 않는 강원도가 되도록 복지사분들이 더욱 힘써달라”고 했다. 강주영

江原日報

2023년 03월 22일 (수)
사회

[포토뉴스]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취임식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취임식이 2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변영혜 18. 19대 회장이 이임하고 진영호 20대 회장이 취임했다. 신세희기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취임식이 2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변영혜 18. 19대 회장이 이임하고 진영호 20대 회장이 취임했다.변 이임회장과 진 신임회장이 회원들의 소망 메시지를 담은 족자를 전달받았다. 신세희기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취임식이 2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김진태 지사, 권혁열 도의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를 비롯한 내빈과 변영혜 18.19대 회장, 진영호 20대 회장과 사회복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2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취임식에서 효자복지관 직원들이 이임 회장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인간 화환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변영혜 18.19대 회장이 이임하고 진영호 20대 회장이 취임했다. 신세희기자



진영호 신임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이 2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린 도 사회복지사협회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신세희기자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장 이.취임식이 21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변영혜 18.19대 회장이 이임하고 진영호 20대 회장이 취임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2일 (수)

종합 02면

도의회 상임위, 이달 줄줄이 해외연수

사문위·농수위·교육위·안전건설위
동유럽·호주 등 벤치마킹 탐방 나서

3월 회기가 끝난 강원도의의회가 '해외
출장 중'이다. 도의회 4개 상임위원회
가 동유럽, 호주 등 국외출장에 나서 강
원 현안 접목 사례를 찾는다.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18~25
일), 농림수산위원회 (19~27일), 교육
위원회 (21~30일), 안전건설위원회

(21~30일)는 지난 17일 3월 회기 종료
후 국외 출장에 나섰다. 사회문화위원
회(위원장 정재웅)는 오스트리아 레
드불FC구단 수익창출 사례 탐방, 체코
프라하관광정책부서 위드코로나관광
정책 논의 등을 위한 일정이다.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네덜란드 덴하그 항만시설, 독일 프랑
크푸르트 바우반(Vauban) 탄소제로
마을 견학, 독일 포르츠 슈속전망대 강
원세계산림엑스포 향후 운영방안 연구

등에 나선다. 교육위는(위원장 박길
선)는 호주 시드니 NSW 학교 직업계고
활성화방안 연구, 웨스턴 시드니 대학
진로진학교육분석, NSW 교육청 다문
화·돌봄 정책 분석 등을 계획했다. 안
전건설위(위원장 박기영)는 뉴질랜드
로토루아 소방훈련센터 인력 시스템
연구, 뉴질랜드 크라이치치시 재난구
호과 간담, 호주 바랑가루 도시재생개
발 시행청 성공사례 연구 등을 계획했
다. 박기영 위원장은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외출장을 가게 됐다"며
"현장에서 많이 보고, 배워 강원도 현안
에 잘 접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2일 (수)

지역 12면

옥계항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 도약 '청신호'

관련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컨테이너 운송 기업에 장려금
5년간 193억여원 소요 예상

강릉 옥계항의 환동해권 물류거점항
만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익순·김문섭·권순민·허병관·
신보금·김용남·이용래·배웅주·박
경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릉시 옥
계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21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되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된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도비 지원대
상 항만에 옥계항을 포함시키는 '강
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강원도의
회에서 최종 의결된데 따른 후속 조
치로, 옥계항을 이용해 화물을 취
급·처리하는 기업에 대해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과 초기 정착금, 화물유
치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옥계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

을 운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 기업
에는 국제항로 운항 장려금을, 자동
차와 건설기계, 컨테이너 수출입 화
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해상운송
기업, 항만하역기업, 국제물류주선
기업에는 화물유치 장려금을 지급
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올해부터 2027
년까지 5년간 193억5939만원으로
추계됐다.

이번 조례안 마련으로 환동해권 물
류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
이 마련,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과 물

류비 절감, 기업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관계자는 "관련 조례안이 4월쯤
공포되면 옥계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수출입 물류를 창출할 기업 및 투자
유치를 가속화 해 물동량을 늘려 나
갈 계획"이라며 "옥계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과 항만 증설 등을 추진
하기 위해 오는 2025년에 실시되는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도
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에도 총
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江原日報

2023년 03월 22일 (수)
종합 01면

“오색케이블카·산악관광 연계 미래산업 육성”

도·도의회·양양군·강원연구원·강원일보사 공동 포럼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완성과 강원도의 미래관광을 위한 대원칙은 ‘지속 가능한 산악관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기사 2면

이를 위해서는 산지 활용과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의 조화, 소득의 유출 및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을 막기 위한 지역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양양군, 강원연구원,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 도약-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승각 강

원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미래관광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강원도가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는 산지 활용이 필요하다”며 “산악관광의 계획적 추진을 통한 환경 훼손 최소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 100만명이 오색케이블카를 방문했을 때 외부자본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과 물가가 상승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지금부터 지역사회와 지역민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은 “상반기 중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마무리하고 산림청 백두대간개발행위 협의, 산지일시사용, 국유림 사용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올해 착공하면 2026년 1월 상업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친환경 명품 케이블카의 미래를 모색하는 이번 포럼에는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장, 최선남 양양군의회 부의장, 김의성·박봉균·이종석·박광수·이명숙 양양군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기영기자

2면에 계속

2023년 03월 22일 (수)
종합 02면

江原日報

“환경친화적 명품 케이블카 만들자” 결의

본보 ‘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서 공로패 전달

21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양양군, 강원연구원, 강원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 도약-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은 2026년 친환경 명품 오색케이블카 완공을 위한 결의의 장이었다. 이날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41년 만의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환경협의 통과와 일등공신인 김진하 양양군수와 오세만 양양군의장,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강원도 산림환경국,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에 공로패를 전달했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40여년간 노력을 다해 온 강원도와 양양군의 각 기관들은 공로패 수여식을 통해 환경협의 통과를 다시 한번 자축하고 2023년 내 착공을 위해 남은 11개 과제의 완수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오세만 양양군의장은 “양양군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전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오색케이블카가

지금 순풍의 뜻을 달았지만 아직 11개의 과제가 남아있다. 남은 절차의 순조로운 이행은 양양군민, 강원도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은 “환경단체와도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접촉을 늘려 제대로 된 세계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원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회를 대표해 공로패를 수상한 진종호(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장) 도의원은 “교통약자들이 오색케이블카 이용 시 불편이 없게 케이블카 캐빈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원도를 대표해 공로패를 받은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오색케이블카는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닌 설악-동해안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연내 착공 및 2026년 상업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도약-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이 21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장, 진종호 도의회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장, 김창규 도 산림환경국장,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전용우 양양군노인회장 등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권태명기자

[포토뉴스]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도약-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이 21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진중호 도의회 오색삭도 특별추진단장, 김창규 도 산림환경국장,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 추진단장,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전용우 양양군노인회장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권태명기자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도약-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이 21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진중호 도의회 오색삭도 특별추진단장, 김창규 도 산림환경국장,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 추진단장,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전용우 양양군노인회장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도약-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이 21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과 공로패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창규 강원도 산림환경국장,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장, 진중호 강원도의회 오색삭도특별추진위원장. 양양=권태명기자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도약-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이 21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진중호 도의회 오색삭도 특별추진단장, 김창규 도 산림환경국장,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 추진단장,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전용우 양양군노인회장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권태명기자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도약-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이 21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려 유승각 강원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이 ‘오색케이블카와 지역관광’, 김철래 양양군 오색삭도 추진단장이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하고 있다.. 양양=권태명기자



‘특별자치시대 강원관광의 새도약-친환경 오색케이블카의 미래 포럼’이 21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열려 강상국 강릉원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와 김창규 강원도산림환경국장, 진종호 강원도의회 오색삭도 설치 특별위원장, 정준화 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전용우 양양군노인회장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양양=권태명기자

江原日報

2023년 03월 21일 (화)
사회

[포토뉴스]신준현 화천군산림조합장 취임식



신준현 화천군산림조합장 취임식이 21일 화천여성회관에서 최문순 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2일 (수)
오피니언 20면



의정칼럼

김희철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교육특례 적극 발굴해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 시점에서 특별법 내 교육특례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자성어 중에 '격화소양'이라는 말이 있다. 신을 신고 발바닥을 굽는다는 뜻으로, 일을 행하여 효과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미비하여 도무지 만족을 얻기 어렵거나 안타까운 때를 이르는 말이다. 현재 강원특별법 내 교육특례 발굴 상황이 딱 그러하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에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특례를 발굴했으나, 현재 강원특별법 내 137개 조문 중 교육분야 핵심특례는 7가지뿐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존에 특례로 14건이 발굴되었으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우선순위 고려, 논리 부족 등의 이유로 5개는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137개 조문 중

몇 개나 통과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중 교육 특례는 더더욱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번만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교육특례가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 교육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강원특별법에 반영한다면 교육특례는 강원교육이 도약하는데 충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발굴될 교육특례에는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보건·복지 등의 분야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고등교육 특례가 전무함을 감안할 때 강원도형 고등교육에 관한 특례 발굴 역시 적극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참고할 만한 선행 모델이 있다. 바로 제주특별자치교육의 사례다. 제주특별법, 제주교육의 운영 성과에 대한 철저한 진단 및 분석은 강원교육의 특례 발굴에 있어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물론 제주 교육과 비교해 우리 강원교육만의 차별화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향후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서는 강원도의회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포함한 강원도민의 의견수렴은 국회 및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도내 18개 시·군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 또한 필요하다. 시·군은 강원도의 상황과 특례발굴 필요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도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현장에서 발굴된 특례가 법안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계협력만이 성공적인 강원특별법 추진과 강원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특례 업무담

당자의 전문성과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특례 발굴은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인수인계에 수반되는 정책 단절과 행정력의 낭비, 비효율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손해가 될 수 있으며, 교육특례발굴에 관련한 전문성 축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서라도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속성과 안정성은 다시 한번 강조될 수밖에 없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청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자세로 교육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강원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사력을 다해야 한다. 교육특례 발굴과 반영이 강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에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육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당부한다.

강원리뷰

2023년 03월 21일 (화)
인물

[동정] 3월 넷째주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달빛카페 회의실에서 열린 중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과 폐광지역 지정면세점 설치방안 회의에 참석했다. ◇조성운(삼척) 도의원은 지난 18일 삼척시민 테니스장 외에서 열린 제1회 원더풀 삼척 에이스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 행사에 참석했다. ◇최재석(동해)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참석했다. ◇심영곤(삼척)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참석했다. ◇김기하(동해)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참석했다. 춘천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19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갈라쇼 행사에 참석했다. 철원 ◇이현종 철원군수는 지난 17일 고성정 관광정보센터에서 열린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화천 ◇최문순 화천군수는 지난 1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양구 ◇서흥원 양구군수는 지난 16일 군청 군수실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동구와 상생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인제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원주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15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2023 원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했다. 횡성 ◇김명기 횡성군수는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했다. 홍천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난 16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사)한국예총 홍천지회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강릉 ◇김홍규 강릉시장은 지난 16일 8층 시민사랑방에서 열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속초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에 참석했다. 고성 ◇함명준 고성군수는 지난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고성군주민자치협의회 1분기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양양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 17일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열린 2023년 재경양양군민회 정기총회 및 제14, 15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동해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 17일 서울 성동구 행당동 레노스블랑쉬에서 열린 2023년 재경동해시민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안성준 동해시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했다. ◇김향정 동해시의원은 지난 15일 현진관광호텔 5층에서 열린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삼척 ◇박상수 삼척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정면세점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정순 삼척시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정면세점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희창 삼척시의원은 지난 18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2023년 비둘기 가족봉사단 출발식에 참석했다. 태백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 13일 태백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농가주부모임 제10대,11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정선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10일 삼양호주 브리즈번 본사에서 열린 정선 우수 농·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영월 ◇최명서 영월군수는 지난 16일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열린 복숭아 재배 상설 교육에 참석했다. 평창 ◇심재국 평창군수는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평창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협약식에 참석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2일 (수)
경제 07면

도내 유망 중기 수출기회 부여 UN·해외 조달 진출 컨퍼런스

강원도는 21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UN·해외 조달 진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수출 다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컨퍼런스에는 UN소속 유네스코 아프리카 대륙 책임자, 유엔난민기구 민간 파트너십 책임자, UN해비타트 나이지리아 청년프로그래밍 책임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UN 산하기구, UN기구 조달시장 진출 방안, 우간다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정부 관계자들의 기관 등을 소개했다.

도내에서는 김진태 지사와 함께 도내 수출 유관기관 대표기업 20여 개사가 참여, 해외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kwnnews.co.kr



◇미래산업 국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강원도 수출기업 UN·해외조달 진출 컨퍼런스'가 21일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심재현 강원도국제관계대사,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밀트 캄부라 우간다 공공서비스 장관특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2일 (수)
문화 26면

강원 역사문화권 정비 계획 올해 수립 착수

김진태 지사 도문화재연구소 방문
예맥역사문화권 조사계획 등 보고

강원지역역사문화권 정비종합계획이 올해 본격 수립된다.

강원도문화재연구소는 21일 김진태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갖고 이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김 지사의 연구소 방문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도출자출연기관 순회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지역 문화재 현안을 두루 점검했다. 도문화재연구소는 2021년 강원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에 근거, 사업비 1억여 원을 들

여 예맥역사문화권 기초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고 학술대회 등을 연다.

연구소가 개발, 주도해온 사물인터넷(IoT)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사업을 비롯해 매장문화재 조사, 강원도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DMZ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강원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문화재 돌봄 등도 지속한다. 독립법인으로서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건물 신축 등도 현안으로 제기됐다. 춘천 우두동에 있는 도문화재연구소 본관

건물은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 지사는 춘천 이궁복원 가능성 등에 대해 묻고 강릉 초당 신라시대 토기 복원 과정도 참관했다. 최종도 도문화재연구소장은 "2020년 독립법인으로 출발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매장문화재 발굴 사업이 침체를 겪고 있다"며 "문화재 가치 확산과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20여년간 자력으로



김진태 지사의 도문화재연구소 참관 모습.

사업을 이어온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연구소에 도움이 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김진형

2023년 03월 22일 (수)
종합 01면

江原日報

“의사 없다며 심장진료 퇴짜” 道 필수의료TF 만든다

상급종합병원인 강릉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4명 빠져나가
원주 세브란스 1년새 60명 퇴사... 의료진 무더기 이직 심각
김 지사·대학병원장·도의사회 간담회서 개방형병원 등 논의

속보=강원도 의료진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서 지역 응급의료 인력과 시설 대책이 또다시 빠지면 서 강원도의 응급의료 공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관련기사4면

올 2월 영동지역 유일의 상급종합 병원인 강릉 아산병원 심장내과 전문의 6명 중 4명이 빠져나가면서 환자들이 원주지역 병원까지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평창에 거주하는 A(79)씨는 지난 달 지병인 심장질환 진료를 위해 아침부터 서둘러 강릉아산병원에 방문했지만 전문의가 없어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다음번 예약도 어렵다는 말을 들어야만 했다.

영동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료

공백이 해소되지 않으면 심장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주나 서울까지 이동해야 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아산병원 은 이달 들어 2명을 긴급 총원했지만 진료 차질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 이직 현상은 강릉아산병원 만의 일이 아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지난해 1년 동안 전문의 60명이 퇴사하는 등 의료진의 강원도 이탈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강원도 내 각 대학 병원 자료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내 4개 대학병원에서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136명에 달하고, 직 종별로는 전문의가 70명, 각 대학병원에서 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사인

전공의는 66명이 부족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내 대학병원장, 강원도의사회는 21일 춘천의 한 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창구인 태스크포스와 함께 강원도 내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며 환자를 진료하는 '개방형 병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진태 지사는 “필수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필수의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추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강원도 내에서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진 유치를 포함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강원도형 시범 모델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박서화·최영재·김인규기자

2023년 03월 22일 (수)
사회 04면

江原日報

‘인력·시설’ 또 빠진 응급의료 대책에 한숨

정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증응급질환 요일별 당번 지정
도내 15개 시·군 사실상 불가능
의료계 “지역 맞춤형 정책 필요”

정부가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역 응급의료에 대한 인력과 시설 대책이 또다시 누락되면서 의료 사각지대인 강원도 농어촌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공시하고,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

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의료계에서는 강원도 '응급의료 공백' 지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지역 내 병원 사이에서 요일별 당번병원을 지정하게 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의료 인력과 시설 확충에 대한 대책은 빠졌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15개 시·군에 중증응급질환 대응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하고는 요일별 당번병원 지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응급실 혼잡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를 응급처치한 후 응급의료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전원하겠다는 방침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성과 양양에는 경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조차 없기 때문이다.

중증의상환자에 대한 초기 치료를 마친 뒤 고난도 치료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권역외상센터로 전원하겠다는 방침 역시 강원도 내에 권역외상센터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곳에 불과해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지역 의료계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

하고 있다. 김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의료 정책이 필수의료정책과 맞물려 인력과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는 의료취약지가 많아 각 지역에서 중증환자 초기 처치를 하기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무업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역시 “강원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인력”이라고 지적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을 통해 지역 인력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 기획하고, 자원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2일 (수)
종합 04면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개명 작업 본격화

내달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교체

강원도가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함에 따라 강원도 지명을 강원특별자치도로 개명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와 관련, 도는 하천·도로교통 등 안내표지판을 내달부터 변경하고 조례, 정보시스템 등 강원특별자치도 개명 작업에 착수했다. 해양·하천 등 10개 사업분야의 지명 변경 대상은 10개 분야 2422개다. 소요 예산은 2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도는 도내 도로교통 안내표지판 교체 대상을 이달까지 추진 이후에 내달부터 교체 작업에 나선다. 정보시스템 명칭 변경도 추진된다. 정보시스템은 주소지와 토지대장 등 정부·지방단체 업무와 연계된 시스템이

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전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명칭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CI(로고)와 캐릭터, 전용서체 등 강원도를 대표하는 상징물도 변경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말까지 기본 디자인을 확정해 4월 초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6월 11일 최종 공개한다. 이와 함께 도는 조례와 규칙에 담긴 강원도 명칭을 바꾸는 일괄개정 조례안과 일괄개정 규칙안을 이달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 9일 공포할 예정이다.

도관계자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개명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2일 (수)
종합 04면

평창군·도교육청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협의

군의회 등 시설협소 문제 제기

속보=열악한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평창군의회가 지적이 제기됐던 평창교육도서관(본지 2021년 12월 2일자 14면) 문제해결을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평창군이 시설 이전 협의에 섰다.

평창읍 평창중앙로 83-17 일원에 조성된 현 도서관은 지난 1993년에 개관해 30년이 넘는 건물이다.

부지 면적 1289㎡, 건축 연면적 911.94㎡로 강원도교육청 산하 도서관 가운데 세번째로 작다. 앞서 군의회에서도 진입로 안전성과 협소한 주차 공간 등이 지적됐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몇 년째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도교육청과 평창군은 22일 평창교육도서관 이전 사업을 위한 관계자 협의를 진행한다. 아직 구체적인 부지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도교육청은 접근성이 좋은 평창경찰서 인근을 이전 부지로 고려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날 첫 협의를 시작으로 평창군과 적극 협의해 조속한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 신축 이전은 신경호 교육감 공약”이라며 “학생만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평창군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민엽

江原日報

2023년 03월 22일 (수)
지역 12면

동해북부선 양양역세권 개발 본격화

군 사업구상 용역 착수

산업·주거 특구 별도 추진

【양양】동해북부선철도 양양역세권개발계획 수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양양역세권은 양양읍 송암리 등 30만㎡로 양양종합버스터미널, 앞으로 들어설 양양경찰서 등과 맞물려 있어 양양도심 확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송이조각공원과 가까워 역세권 개발 완료시 관광 활성화

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양양군은 양양역세권 개발 사업 구상을 위한 용역 계약을 지난 20일 마쳤다. 10개월 후 확정될 기본구상에는 개발여건 분석, 개발가능 용지 분석 및 대상지 발굴, 도시개발사업 규모 및 내용, 추진 방식 등이 담긴다.

군은 양양역세권을 산업·주거단지로 사용하기 위한 특구지정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군은 또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에 올해 안에

응모할 방침이다.

양양역세권의 토지는 농림지역이 9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토지 규제가 개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양유경 군 기획팀장은 “현재로선 토지 규제가 걱정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후 토지규제에 대한 해지 권한이 강원도지사로 이관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난개발 방지 방안도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2일 (수)
종합 04면

평창 습격한 날파리떼 ... “수천마리 무리 일상 방해”

기온 상승에 급증 주민불편 호소
군보건의료원, 자체방역팀 가동

최근날씨가따뜻해지며평창읍 시가지와주변 산책로 일대에 날파리떼가 극성을 부려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낮기온이 영상 20℃ 이상 올라가는 등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평창읍 시가지와 주변에 날파리떼가 급격히 늘어나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날파리떼는 시가지 주택가는 물론 주변의 노람들 바위공원과 평창평화길 등 주민들의 걷기 코스에도 수천마리씩 무리지어 날아다니며 주민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고 있다. 날파리떼는 주택가에 주차한 차량에 달라붙어 차량안으로 들어오고 주택이나 상가내부로 날아들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평창강을 끼고 조성한 평창평화길과 남산데크길 등 주민들의 걷기 코스에도 떼를 지어 날아다니며 산책하는 주민들의 얼굴이나 옷자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며 평창읍 시가지와 주변 산책로 일대에 날파리떼가 극성을 부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평창강 인도교 야간 조명에 모여든 날파리떼.

락에 달라붙어 성가시게 만든다는 것. 이때문에 주민들은 주택이나 상가의 창문을 활짝 열지 못하고 일부 상가는 날파리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름철 가동하는 에어컨을 켜놓는 등 날파리떼로 인한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 평창평화길 등 평창강 주변 걷기코스를 산책할 때도 날파리들을 퇴치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호안경을 착용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주민 이모(68) 씨는 “일찍 극성을

부리는 날파리떼로 인해 따뜻한 날씨에도 집 문을 활짝 열어놓지 못하고 평창강 주변 산책로를 걸을 때도 얼굴과 옷에 달라붙어 걷기에 방해가 된다”며 “날파리 퇴치를 위한 방역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예년보다 일찍 따뜻해진 날씨로 날파리떼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부터 자체방역팀을 가동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태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2일 (수)
사설/칼럼 21면

원주 아카데미극장 갈등 비화 안돼

-보존 찬성 측 간담회 불참, 원점 논의 필요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원주아카데미극장 보존 여부를 두고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동체 문화·역사가 축적된 건축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극장을 철거하고 전통시장을 살리는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입니다. 최근 엔시에서 마련한 간담회가 난항을 겪는 등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극장 보존 논란이 지역 내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와 상인들은 조건 없이 만나 극장의 존폐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보존과 철거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결정해 더 이상의 마찰을 막아야 합니다.

1963년 문을 연 아카데미극장은 스크린을 1개만 갖춘 단관극장의 원형을 유지한 건축물입니다. 원주에서도 복합영화관이 잇따라 생기면서 2006년 아카데미극장을 포함한 단관극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극장들은 모두 철거됐지만 아카데미극장은 건물 소유주가 상영관외 용도로 사용하면서 헐리지 않았습니다. 극장 내부에는 객석, 영사실, 매표구, 간판 거치대, 광고판 등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옛 시설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극장 보존과 철거를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입니다. 보

존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극장은 지역의 공동체 문화·역사가 축적된 건축물로, 향후 문화콘텐츠로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관광명소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가치가 미미하고 건물 안전도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극장을 헐고 주차장 등 상권 활성화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립이 심화하자 원주시는 원도심 일대 상인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보존 지지 단체는 철거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며 불참을 결정, 현재로선 해결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보존과 철거를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은 모두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지역 내 갈등으로 확산해서는 안 됩니다. 원주시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만 논의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미리 방향을 정하지 말고,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진정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철거와 보존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대 측이 제기한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까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2일 (수)

사설/칼럼 19면

강원도 바이오헬스 산업 전략, 반드시 성공해야

강원도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과 도약을 위한 ‘강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춘천·홍천 ‘바이오 융합’, 원주 ‘디지털헬스케어’, 강릉 ‘천연물 신소재’, 평창·정선 ‘스마트 헬스케어타운’ 조성을 통한 바이오헬스 분야의 집중 육성이다. 정부가 최근 강릉을 천연물 바이오 산업 특화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데다 춘천과 원주도 다년간 산업역량을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바이오헬스가 강원도의 대표 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도내 바이오기업은 현재 1,394개

로 2조7,0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강원도는 매출 7조원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마련, 기업과 대

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계약 랩 등의 도입도 검토한다. 또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가칭 강원도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국가신약개발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연매출 1조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1조원 규모의 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및 인재 양성 계획도 내놔다. 2021년 기준 86억달러(약 11조원) 수준인 의료기기 수출 규모를 2027년에 세계 5위 수준인 160억달러(약 21조원)로 늘려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헬스 6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고령화 시대

를 맞아 바이오헬스는 세계 시장 규모가 2,600조원에 달하는 유망 산업으로 떠올랐다. 미래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할 때 강원도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주력 산업 개편안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데이터 분석, 천연물 바이오소재 등 바이오헬스 산업과 세라믹 신소재, 차세대 고성능 센서 등을 강원지역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비수도권의 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인구마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지역 산업의 성장은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매출 목표 7조원의 지역 대표 산업으로 부상
道, 전문인력 양성·종합 지원 조례 제정키로
실행 꼼꼼해야 미래 먹거리로 키울 수 있어**

지역 기업의 성장은 지방재정 확충 등의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의 선순환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강원도가 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워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따라서 계획과 실행, 완성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도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은 미국과 비교할 때 79.4%로 기술 격차는 2.5년인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의 강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란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03월 22일 (수)
사설/칼럼 21면

전통시장 특화된 매력 상설이어야

-봄 여행철 방문객 온도차 커, 골목상권 활력되도록

봄철을 맞아 상설 재래시장과 연계된 전통오일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정선군과 원주시 등에서는 시장 방문객 흥을 돋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해 홍보에 나섰습니다. 최근엔 충남 예산시장이 미디어매체에 화제가 되면서 지역시장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근간이 되도록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강원 전통시장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곳이자 오일장 및 주말엔 관광자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나물 수확기와 봄 여행철은 시장 방문객이 늘어나 활기찬 상경기를 기대하게 하는 시즌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외지 방문객이 많길 기대하고 있지만, 숫자의 온도차는 매우 다릅니다. 장터에 수천 명이 물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수십 명에 그치기도 합니다.

도내엔 정선아리랑시장, 속초관광시장, 북평민속오일장 등 유명 장터가 곳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시장은 활어로, 영월과 평창은 메밀전병 골목으로 정평이 나 지역 먹거리 특산물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장입니다. 잘만 육성하면 골목경제 및 농수특산물 유통 등 지역경제의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원하는

물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맛은 있는데 비위생적이고, 대형 쇼핑몰과 달리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침체는 불보듯 합니다.

그 때문에 전통시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단순한 기능에 머물러 있으면 한계에 부딪칩니다. 각 시군에서 시장 활력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지만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산시장도 반짝 인기 아닌 지속적 효과를 내고 부족한 문화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재개장 준비에 들어가 4월에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스타플레이어의 조연과 지휘가 축진제가 되기는 했지만, 눈여겨봐야 할 점은 상인들이 방문객의 불편함을 받아 들여 개선하고, 원하는 지점은 적시에 끌어내 대응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고민은 비슷하지만, 각기 여건은 다르기에 개성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안인 시장 방문객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장소만의 독특한 경험에 호감을 느낀 젊은층을 분석해야 합니다. 첨단기술로 인해 빠르게 입소문이 전파되는 시대입니다. 지역성에 기반한 개성과 문화적 요소를 찾아내 상설적으로 가치를 늘려 가야 시장의 역동성이 일어납니다.

江原日報

2023년 03월 22일 (수)

사설/칼럼 19면

도 수출 8개월째 감소, 활력 불어넣을 대책 마련을

강원도 수출 다변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 여파에 강원도 수출액이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 본부가 발표한 ‘2023년 2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수출액은 1억9,784만 달러(환율 1,309.5원 기준 한화 2,590억7,148만원)로 전년 동월 대비 18.8% 줄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출액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으며 올 들어 두 달째 큰 폭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눈여겨볼 점은 도내 수출액 규모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한 건 2015년 4월 이후 처음이라는 데 있다. 당시 세계경기의 위축으로 2016년 8월까지 17개월간 수출이 전년 대비 줄어들며 장기 침체 흐름을 나타냈다. 또한 지난달 도내 수입액은 7억1,030만 달러(한화 9,301억3,785만원)로 전년 동월 대비 97.0% 급증했다. 국내 총수입액이 같은 기간 3.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오름세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뺀 도내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달 5억1,246만 달러(한화 6,710억6,637만원)로 집계됐다. 대외 경제 여건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면의 연속이다 보니 강원

도 무역수지는 계속 불안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적자 누적 속도도 빠르고 장기화 관측도 나온다.

무역수지 적자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원자재 수입 가격의 고공 행진에 세계은행이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재현을 경고할 정도로 50년 만의 고물가에 직면해 있다. 일단 물가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더욱이 강원도 내 수출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수출 확대가 대안이겠지만 여건이 만만치 않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도 경기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를 혁파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의료·바이오 등 미래 유망 분야에서 전략적 대응 방안이 필요할 때다. 힘든 상황이지만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출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해상 운송 등 수출물류 애로 해소 등으로 꼽히고 있다. 어느 때보다 더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수출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거해 줘야 한다. 기업도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품질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